

그 예쁜 아이를 잃은 뒤 웃음도 잃었다

스쿨존
어린 생명을 지키자

〈상〉 가족들의 고통

4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광주 2명 사망·87명 부상
전남 85건에 101명 부상
30km 구간서 난폭운전 '아찔'

광주지역 어린이교통사고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광주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지난 3년간 매년 1명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4명의 어린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 4년간 광주지역 학교 앞 스쿨존 내 교통사고도 85건이나 발생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87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남지역도 같은 기간 모두 85건(101명 부상)의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가 심각한 상황이다.

어린이교통사고는 한집안의 웃음을 잃게 하고, 남은 가족의 평온한 삶을 영원히 깨뜨린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시·전남도교육청, 광주·전남경찰청 등은 매년 신학기만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상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교육 등은 이뤄지지 않고 어른중심의 형식적인 캠페인만 반복되다보니,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줄기는커녕 되레 늘어나고 있어서다.

#1.올해 광주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A(7)양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밝은 성격을 가진 예쁜 아이였다. 부모들도 학교생활을 잘하는 딸이 대견하고 사랑스러웠다고 한다.

하지만, A양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시 30분께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건너다 전모(43)씨의 승용차에 치여 부모의 곁을 떠났다.



스쿨존서 질주하는 트럭 11일 오후 광주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자동차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다. 해당 도로에서는 지난 6월 이 학교 1학년 여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당시 운전자는 학교 앞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횡단보도(왕복 2차선)를 뛰어 건너가던 A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사고로 A양 가족의 행복한 삶도 사라졌다. 사고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모는 차마 딸의 물건을 치우지 못하고 눈물로 지새우는 날들이 많아졌다. 같은 반 친구들이 꽃다발, 편지 등을 딸의 자리에 놓아주며 추모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고마움보다는 슬픔이 먼저 다가왔다.

더 큰 문제는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한 살 위 오빠(8)였다. 등·하교 때 마다 A양이 사고를 당한 지점을 지나는 오빠는 매일 "무섭다"며 엄마 품을 파고들었다. 결국, A양 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오빠도 정든 친구들과 헤어졌다.

A양 사망사고 후에도 사고 장소에는 예산 등을 이유로 '스쿨존 불법 주정차 금지 현수막'만 매달려 있을 뿐, 과속·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등은 설치되지 않고 있다.

#2.손자 B(9)군은 할머니 C(60)에게 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였다. 가정생활에 불화가 있었던 아들 내외가 갈라선 뒤 B군은 할머니 품 안에서 컸다.

혼자 살던 C씨에게 손자 B군은 유일하게 웃음을 주는 위안거리이자 사랑스러운 가족이었다. C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소식을 끊겨 생사를 모르는 아들을 대신해 B군에게만은 부족함 없이 정성을 쏟았다고 한다.

B군의 학교에서도 C씨의 손자 사랑은 유명했다. 각종 행사 때마다 흑시라도 손자가 주눅이 들까봐 발벗고 나섰고, B군이 친구들과 놀다 늦게 집에 오는 날에는 어김없이 운동장 언저리에서 C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극진한 할머니 보살핌 속에서 자란 B군은 그늘진 모습 없이 쾌활한 성격으로 선생님들과 주위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야구선수가 꿈이었던 B군은 학교 내 동아리 활동도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이들 가족에 비극이 찾아온 건 어린이 날을 며칠 앞둔 지난 5월 1일. 친구와 놀다 귀가하던 B군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이후 할머니는 한 달여 동안 낮을 놓을 듯 학교 근처를 서성거리고, 손자와 닮은 아이를 보면 얼굴을 확인하는 일을 반복했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B군 사고가 잊힐 무렵, 할머니의 외출 횟수도 부쩍 줄어들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아예 할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손진 B군이 다니던 학교의 한 교사는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죽으면 그 부모나 가족이 어떻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다"며 "요즘도 학교 앞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난폭하게 지나가는 차들 때문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저들도 가족 중에 아이들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때면 심복한 기분마저 느껴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실수로 자동세차기 파손...운전자 80% 책임

광주지법 "주유소도 관리 책임"

운전자 실수로 자동세차기를 파손했다면 주유소의 관리 책임도 일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 과실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광주지법 민사1부(이건배 부장판사)는 "광주의 한 주유소가 자동세차기를 파손한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A씨는 2015년 자동 세차를 하면서 세차기가 작동하기 전 미리 진입했다가 기계 일부를 파손했다. 주유소 측은

1300만원을 들여 세차기를 수리하고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세차기를 이용하기 전 기어를 중립에 두고 기다려야 하는데도 곧바로 차량을 전진해 사고를 내어 인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는 안전을 위해 세차기 이용객에게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지, 차량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세차기를 작동시키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세차기 파손에 대한 A씨의 배상 책임을 80%까지만 인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온라인게임 중 욕설...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광주지법 "평판 저하로 모욕"

온라인게임 중 대화창에서 욕설을 듣고 그 충격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부(이정훈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B씨 등 7명과 지난해 4월 온라인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B씨로부터 게임이 미숙하다며 단체 대화창을 통해 심한 욕설을 들었다.

A씨는 "B씨의 욕설로 심한 모욕감과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팀원들과의 대화창에서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해 원고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원고가 피고의 행위로 질병에 이르는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신과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여수해경, 여수불꽃축제 행사장 난입 선장 입건

여수해양경찰청은 11일 "지난 여수밤바다 불꽃 축제행사 중 선박통제구역에 난입해 사고까지 날뻐한 유람선 R호 선장 남모(77)씨를 업무방해죄로 입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8월12일 밤 9시30분께 여주시 여수해양공원 앞 해상에서 열린 '2017 여수밤바다 불꽃 축제'를 위해 지정된 선박통제구역을 가로질러 돌산대교 쪽으로 빠져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결과 R호는 승객 681명을 태

우고 여주시·해경 등의 경고를 무시한 채 불꽃놀이 화약 6만발이 실려 있던 바지선 쪽으로 충돌 직전까지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바지선에서 400여m 떨어진 여수해양공원에 경찰 추산 10만명의 인파가 축제를 보기 위해 몰려 있었다.

선장 남씨는 해경에서 "강한 바람과 조류에 의해 부득이하게 선박이 밀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여수해경이 확인한 결과 당일에는 강한 바람과 조류가 없었다."며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바쁜 집배원에 책 안 읽었다고 문책?

광주에서 한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 등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광주의 한 우체국 간부가 가장 바쁜 배달 업무 시작 전 집배원들에게 독서를 강요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은 11일 성명에서 "격무

로 과로하는 집배원에게 한 우체국 간부가 업무 중 책 읽기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며칠 전 해당 우체국에서는 우체국장의 지시로 책읽기를 권장했다. 배달 나가기 전 가장 바쁜 업무시간인 오전 8시~8시 10분 사이 집배원들이 책을 읽지 않았다며 집배실장은 한 집배원을 따로 불러 책을 읽도록 하는 등 황당한 일이 발

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집배실장)배달 물량을 전산 입력하지 못하고 나간 집배원들의 꼬투리를 잡아 밖에서 PDA(휴대용단말기)로 입력이 가능한 업무를 즉시 사무실로 복귀해 처리하도록 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 간부는 "책 읽기는 직원 정서안정을 위해 4차례 설문조사를 거쳐 과반 찬성으로 시행한 정책이며,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였을 뿐 강제하지 않았다"며 "배달 전산입력 업무의 경우 1년 정도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업무누락이 되풀이돼 해당자를 불러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 5일 서광주우체국 소속 집배원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술취한 50대 "택시비 없다" 떼쓰더니 택시에 방화 시도



○...택시요금에 없다며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에 불을 지르려 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쇠고랑.

○...1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김모(54)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55분께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자택 앞에서 택시비 1만원을 잃어버렸더니 요금지급을 거부

한 데 이어 항의하는 택시기사(59)에게 욕설을 퍼붓고, 집에서 등유를 가져와 택시에 뿌리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수차례 폭행했다는 것.

○...도주 우려로 구속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하남지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부안 숙박시설(모텔) 매매·임대

여름성수기 펜션 영업가능

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2개동 룸43개)
직접 운영시 월 수익 1500만원 가능

감정가 16억 → 매매가 9억
(용 6억, 보 1억, 실투자 4억) ★즉시임대가능★

직매 010-7384-7800

영광주택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내부개끗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감정가 1억 1천
매가 9천8백

010-6670-9800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노후대비 최적합

- 상무지구 치평동 상가 1층
감정가 16억 → 최저가 5억7천
- 동구 금남로 총장로 코너(15층 상가건물)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75억(특A급)
- 북구 삼각동 상가건물 (4층)
병원, 요양병원 적합
감정가 189억 → 최저가 85억
- 상무지구 치평동 지하상가 (교회, 기타적합)
감정가 1억 → 최저가 7천
- 상무지구 치평동 4층 상가코너 (병원)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10억5천
- 북구 양산동 공장 (토지 3653㎡, 건물 3971㎡)
감정가 39억 → 최저가 17억
- 충남 홍성 상가건물 (주유소, 모텔, 식당종합건물)
감정가 55억 → 최저가 13억

특수물건, 절반물건, 상가, 토지, NPL전문

경매교육

매주 월요일 개강
기초부터 실전까지
062-382-5500